도선사 '금강경 독송' 3년 정진결사 회향

2022년 입재…올 8월 21일 회향
1만 8천여 명…매달 1000명 동참
청담 스님 정법불교 계승 발원
태원 스님 "내면 성찰 자신 변화"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도선사가 주지 태원 스님 취임과 함께 시작했던 '우리말 〈금강경〉 21일 독송 기도'를 제33차를 끝으로 원만 회향했다. 태원 스님은 도선사의 중흥을 발원하며 한번도 빠짐없이 집전을 맡았다.

호국참회기도도량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가 주지 태원 스님의 원력 아래 2022년 1월 1일 입재했던 '우리말 〈금강경〉 21일 독송 기도'를 제33차를 끝으로 원만 회향했다. 도선사 중흥을 발원하며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도선사는 8월 21일 경내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우리말 〈금강경〉 21일 독송 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도선사의 '〈금강경〉 21일 독송 기도'는 2021년 9월 주지로 부임한 태원 스님의 원력에서 시작됐다.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 청담 스님(1902~1971)의 정법불교 유지를 계승하고 호국참회 관음기도도량이라는 도선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태원 스님은 부임과 동시에 정진을 실천에 옮겼다.

태원 스님과 불자들은 매월 양력 1일부터 21일까지 오전 10시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 모여 '〈금강경〉을 독송했다. 기도 시간에는 강당 좌우측 상단 스크린에 동참 불자들의 바람을 축원하는 글을 송출해 신심을 고양하기도 했다.

그렇게 3여 년이 흘렀고 태원 스님은 다음 달 중순 주지 퇴임을 앞두고 있다. 주지 임기 시작과 끝을 〈금강경〉 독송과 함께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도들이 있었다.

태원 스님은 회향법회에서 먼저 처음 기도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의 주변 반응을 전하며 "'큰절 주지가 다른 업무도 많은데…'라며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려와 염려가 있었다"고 웃었다. 이어 "부끄럽게도 출가 후 여러 소임을 맡으면서도 진정 부처님을 시봉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는 게을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내면 성찰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삼아야겠다는 생각에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님은 "기도를 시작한 후 스스로가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가득 차 있다는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힘들 때마다 목탁을 들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끔 도와준 신장은 바로 도선사 신도들"이라면서 "함께하는 독송 기도였던 만큼 회향하는 복전을 두루 나누게 된 것에 마음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곧 퇴임을 앞둔 태원 스님은 주지로 함께한 시간들을 하나하나 회상하기도 했다. 2022년 코로나19로 사찰 운영과 기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 2023년 자승 스님의 원적으로 마음이 힘들었던 일, 2024년 청담 대종사 사리탑 불사 중 겪었던 갈등, 올해는 어깨를 짓누르는 통증까지. 스님은 "몇 번이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법당에서 기도하는 신도들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면서 "함께한 모두, 인연과 인과를 믿고 앞으로도 열심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부처님 가피로 스스로의 변화와 함께, 주지로 올 때 세운 원력들이 차근차근 결실을 이루게 됐다"면서 "청담 스님 사리탑 정비불사, 사천왕문 주변 땅 한 평 불사, 진입로 열선 공사 유치 등 불사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금강경〉 기도 덕분"이라고 전했다.

3년 간의 〈금강경〉 독송에 함께한 연인원은 1만 8000여 명. 평균 매달 1000여 명이 기도에 동참했다. 태원 스님은 이날 회향법회에서 신도들이 3년 간 수지한 〈금강경〉에 가피 도장을 하나하나 찍어주며 아쉬움을 달래는 한편, 끝없는 수행을 당부했다. 또 연비 도장과 함께 단주를 나누며 회향의 기쁨을 나눴다.

"하루 동안 수행자로"

봉녕사 팔관재계 법회, 55명 동참
선명상 · 108배 · 공덕행 등 수행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8월 16~17일 경내 일원에서 '제2회 팔관재계 수행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팔관재계는 사찰에서 하루 동안 8가지 출가계를 지키며 해탈 열반의 인연을 심는 수행법이다. 일체 음행을 금하고 오후불식으로 음욕과 식욕을 끊는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1박 2일간 열린 법회에는 재가불자 55명(우바새 17명·우바이 38명)이 참석해 출가자의 삶을 경험하며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5월 총 44명이 동참한 첫 법회보다 남성 참가자가 6명에서 17명으로 크게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주지 진상 스님은 "부처님은 태양처럼 온 우주를 똑같이 비추신다. 우리 역시 깨달음을 얻으면 태양과 같은 능력을 지니지만, 마음속에는 번뇌의 구름이 가득해 이를 걷어내야 한다"며 "그 구름을 걷어내는 방법이 곧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진상 스님은 이어 "팔관재계는 나를 변화시키는 씨앗이다. 그냥 던져 놓은 씨앗이 잘 자라지 않는 듯, 깊이 자리 잡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수행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큰 공덕이니 주변의 많은 이들이 팔관재계 수행법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참가자들은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해 휴대폰을 반납한 후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의 팔관재계 특강, 팔관재계 수계식, '우바새계경' 독송, 걷기 명상, 선명상, 108배, 풀 뽑기 공덕행, 수행여정 나누기 등의 정진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김내영 기자

수행의 공간, 스크린으로 피어나다

날마다좋은날, 8월 23일~9월 20일
'2025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2025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가 8월 23일~9월 20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개최된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증명 아래 정원주 이사장이 조직위원장, 송일곤 감독이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세계일화(世界一花, One World One Flower)'는 '온 세상이 하나의 꽃'을 의미한다. 불교의 자비와 지혜가 전 인류의 삶에 고르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해 5회차를 맞은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에는 장편영화 '총을 든 스님' '문경' '스노우 레오파드' '성스러운 돌' '매트릭스1'을 비롯해 전 세계 111개국에서 총 1637편이 출품됐다. 인도, 이란, 미국, 중국, 이탈리아, 튀르키예,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했으며 이 중 예심과 본심을 거쳐 선정된 최종 20편(16개국)의 작품이 본 영화제 단편 컬렉션에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한국불교의 수행문화를 세계와 나누기 위해 사찰음식 체험과 템플스테이, 요가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지역순회상영회도 함께 마련됐다.

전국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가수 하림, 배우 윤진서 등이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하며 9월 19~20일 조계사에서 이틀 간 상영회를 끝으로 영화제는 회향한다.



송일곤 집행위원장은 "세계일화의 정신 아래 각자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예술이라는 언어로 풀어내고자 노력했다"면서 "드라마, 코메디, 액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열린 영화제를 지향한다"고 올 영화제를 소개했다.

정원주 조직위원장은 "올해 영화제는 권역별 주요 사찰과 연계해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많은 불자, 대중과 함께하고자 준비했다"면서 "영화제를 통해 불교가 대중에게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많은 이들이 위로를 넘어 통찰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홈페이지(oibff.com) 참조. 02-733-7277

임은호 기자

"올 가을, 전국사찰노래자랑서 만나요"

연예인전법단, 하반기 활동 공유
불자 화합·불자 연예인 발굴 목표



지난해 가을, 연예인전법단이 기획부터 연출, 심사까지 행사 전반을 주관하며 화려한 무대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던 '전국사찰노래자랑'이 올해 또다시 불자들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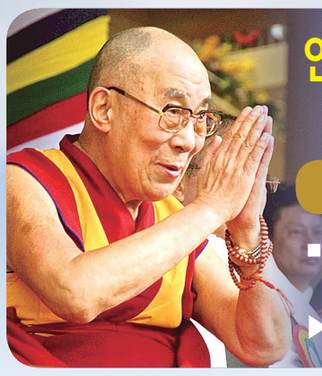
조계종 연예인전법단(단장 우봉 스님)은 8월 20일 서울 종로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활동 계획을 밝혔다.〈사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국사찰노래자랑. 연예인전법단은 지난해 서울 화계사에서 성공적인 축제 마당을 펼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다수 사찰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특히 신도들 간 화합은 물론,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자리이자 지역의 '끼'있는 청년 불자 가수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9월까지 참여 사찰의 접수를 받아, 10~11월 2개월 간 축제의 장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국사찰노래자랑에 앞서 9월 22~24일에는 서울 화계사에서 이웃돕기 자선 바자회를 연다. 또 9월 중 불자 연예인 수계 법회와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고, 연예인 불자들만을 위한 불교대학도 준비 중이다. 화계사 불교대학의 학사 운영 커리큘럼과 학사관리를 통해 불자 연예인들이 제대로 된 불교 지식을 쌓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이밖에도 10월에는 화계골빨래터 노래자랑이, 11월에는 국립재활원 요양환우를 위한 음악회가 준비됐다. 12월에는 연말 디너쇼와 올해의 연예인 대상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노래자랑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연말 결선대회도 구상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11월02일 출발~11월07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50만원 (보시금 30만원 별도)

인도 달라이라마 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13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일정입니다.
10월27일 출발~11월08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399만원 (보시금 30만원 별도)

인도 달라이라마 친견 및 아잔타석굴 9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및 남인도 아잔타석굴,산치대탑등 순례 일정입니다.
10월31일 출발~11월08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오랑가바드-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산치대탑-델리-다람살라-달라이라마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359만원 (보시금30만원 별도)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 일정으로 돈황석굴과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10월10일~10월19일(9박10일)
■ 일정: 인천-서안·법문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끝)·돈황석굴-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9월10일 출발~9월15일 도착
11월25일 출발~11월30일 도착
■ 일정: 인천-남경-지장보살 구화산-항주-관음보살 보타산-상해-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 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중국 4대 석굴중 하나인 대족석굴, 낙산대불등 사천성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10월22일 출발~10월26일 도착
■ 일정: 인천-성도-대족석굴-낙산대불-3,077미터 아미산 케이블카 등정-성도-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성지순례 10일
10월23일 출발~11월01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11월30일 출발~12월09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인도양의 진주 아름다운 스리랑카 성지순례
11월26일 출발~12월03일 도착(8일간)
■ 일정: 인천-콜롬보-담불라-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홍차산지)-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문의